

노화와 만성·퇴행성 질환

노인성 치매에 대하여

유동준 / 경희의대 교수, 한국성인병예방협회 부회장



노인성 치매(Senile Dementia)란?

노인성 치매는 원인에 따라 몇가지로 나누어지며, 치료방법도 조금씩 다르다. 대표적인 것으로 외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알츠하이머"병과, 우리나라에서 큰 문제가 되는 뇌경색성 치매가 있고, 그 외에 알코올성 치매, 약물중독성 치매, 감염질환에 의한 치매 등이 있다.

노인성 치매 환자는 뇌의 크기가 줄어들고 형태가 일그러지는 등 뇌 자체에 병변이 있다. 뇌는 특정한 부위에 특정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병변이 발생한 부위에 따라 여러가지 증상이 나타난다.

치료는 그 원인에 따라 달라지므로, 노인성 치매를 치료할 때는 먼

저 정확한 진단을 하고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내과, 신경과, 정신과, 신경외과 및 건광관리과 등의 협력이 필요하겠다.

노인성 치매의 원인

노인성 치매는 하나의 질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원인 혹은 원인질환에 의해 나타나는 뇌기능의 감퇴현상이다. 지금까지 노인성 치매와 관련된 질환으로 알려진 것은 약 70여 가지나 된다고 한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은 혈관성 치매, "알츠하이머"병, 알코올성 치매, 비타민 결핍성 치매, 뇌질환에 의한 치매, 감염성 질환에 의한 치매 등이다.

(1) 혈관성 치매(다발성 뇌경색성 치매)

뇌혈액순환 장애가 악화되면 뇌졸중(뇌경색)뿐만 아니라 치매가 될 수도 있다. 혈관성 치매란 뇌에 있는 여러개의 혈관이 경색을 일으켜서 뇌의 광범위한 부위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기억력의 감퇴, 집중력 저하 등을 나타낸다.

노인성 치매의 증상은 오랜 시일에 걸쳐 서서히 발현하므로 뇌졸중과 같은 급작스런 발작을 일으키진 않는다.

원인으로는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부전, 당뇨병 등이 있다.

(2) "알츠하이머"병

서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노인성 치매가 "알츠하이머"병인데, 이 병은 기억력장애로 시작하여 행동장애, 언어장애를 거쳐 결국에는 전반적인 인격의 황폐를 몰고오는 매우 중독한 치매이다. 이 병의 원인은 뚜렷하게 밝혀지진 않았으나, 바이러스 감염, 유전적 결함, 자가면역질환 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알츠하이머"병의 특징은 전반적으로 뇌가 심하게 위축되어 있으며, 뇌실이 확장되어 있고, 뇌신경세포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이 감소되어 있다고 한다. <사진 1 참조>

(3) 알코올성 치매

만성 알코올 중독자의 경우, 뇌가 위축을 일으켜 치매가 될 수 있

다. 알코올은 뇌신경에 직접 독성을 나타내므로 치매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알코올 중독자의 대부분이 영양결핍상태여서 비타민 부족으로 인한 치매와 복합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4) 비타민 결핍성 치매

비타민 B1, B2, 엽산, 니코틴산 등의 결핍이 뇌신경, 말초신경 등을 침범하므로써 치매가 발병할 수 있다.

(5) 뇌질환에 의한 치매

뇌종양, 뇌수종, 뇌혈종 등 뇌자체의 질환에 의해 치매가 발생하기도 한다.

(6) 감염성 질환에 의한 치매

매독균이 뇌에 침투한 경우, AIDS 등으로 뇌에 감염이 일어난 경우에도 치매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

노인성 치매의 증상

(1) 기억력 장애

새로운 것을 잘 기억하지 못하며, 어디에 무엇을 두었는지 쉽게 잊어버린다.

(2) 지남력(指南力) 장애

시간과 장소를 잘 구분하지 못하고, 어떤 일이 왜 일어났는지 무엇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사건의 인과관계를 파악하지 못한다. 또한 누가 누구인지 사람을 잘 못알아볼 뿐 아니라 심지어는 가족들까지 구분하지 못한다.

(3) 언어장애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잘하며 의미없는 말을 되풀이 하기도 한

다. 대화도중 엉뚱한 답변을 하거나 이해하지 못할 얘기를 하여 상대방을 당황하게 한다.

(4) 인격의 변화

사리에 밝던 사람이 갑자기 도덕관념을 잃어버리고 남의 물건을 자기것처럼 사용하거나 성적으로 추한 행동도 스스로없이 한다.

(5) 정신장애

치매 노인의 심리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많다. 이유없이 화를 내고, 일상생활에 대한 흥미나 관심을 잃어버리고, 쓸데없이 고집을 부리며 남을 의심하는 등 예측할 수 없는 심리변화로 대인관계에서 감정대립을 일으킨다.

그러나 이러한 증상들은 노인들 특유의 자연스런 심리변화와 구분하기가 어려우므로, 노인이 일상생활에서 흥미를 잃고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면 증상을 자세히 관찰하여 치매의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겠다.

노인성 치매의 치료와 예방

노인성 치매는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노인성 치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혈관성 치매와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치료와 예방에 대해 알아보겠다.

(1) 혈관성 치매

이의 치료는 뇌졸중(중풍)치료에 준하여 하는데, 즉 고혈압, 동맥경화, 당뇨병 등 원인질환이 있는 경우엔 이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일차적 치료방법이다. 이에 앞서

<사진 1>

노인성 치매 환자의 뇌·위)는 정상뇌 아래)에 비해 전반적으로 위축되어 있으며, 특히 측두엽의 위축이 심하다.



뇌혈액순환장애 초기에 혈액순환 개선제 따위를 꾸준히 사용하여 뇌졸중이든 노인성 치매든 이들이 진행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2) "알츠하이머"병

이 병은 뇌세포수의 감소와 뇌위축을 특징으로 하고 있어, 이의 치료방법은 뇌세포와 뇌기능을 활성화시키는데 집중되어 있다.

대체로 뇌대사개선제, 뇌혈관확장제, 정신자극제, 신경전달촉진제 등이 많이 쓰이고 있다.

그 외에 노인성 치매의 일반적인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항우울제, 진정제, 수면제 등을 사용하고 있으나 부작용이 많으므로 반드시 의사의 지도를 받으며 상의해야 할 것이다. A